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17.(화) 11:00
(지면) 2026. 11. 18.(수) 조간
배포 2026. 11. 17.(화) 06:00

해수부·한화오션, 거제 바다숲 조성에 함께해

- 민·관 공동투자로 2029년까지 13억 원을 투입, 바다숲 1.59㎢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18일(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한화오션, 거제시, 한국수산자원공단(FIRA)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바다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변광용 거제시장,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거제에서 선박 건조와 해양기술을 통해 성장해 온 한화오션이 바다 생태계 회복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기관들은 ▲수산자원 증대 및 해양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바다 생태계 개선, ▲탄소흡수원 기반 확대 및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바다숲 조성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바다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한화오션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각각 6.5억 원씩 총 13억 원을 투입해 경상남도 거제시 외포리 해역에 1.59㎢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 해조류 등의 포자가 바위에 붙기 쉽도록 바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갯닦기, 해조류 이식, 해조류 포자 확산 시설 설치, 해조류를 먹는 성게 제거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사업 수행과 관리를 담당하고, 거제시는 바다숲 조성이 완료된 이후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해조류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바다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 온 한화오션이 바닷속 생태계의 미래를 가꾸는 데까지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정부도 기업의 참여가 실질적인 바다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살린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동양 (051-773-5530)
		담당자	서기관	정윤석 (051-773-55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